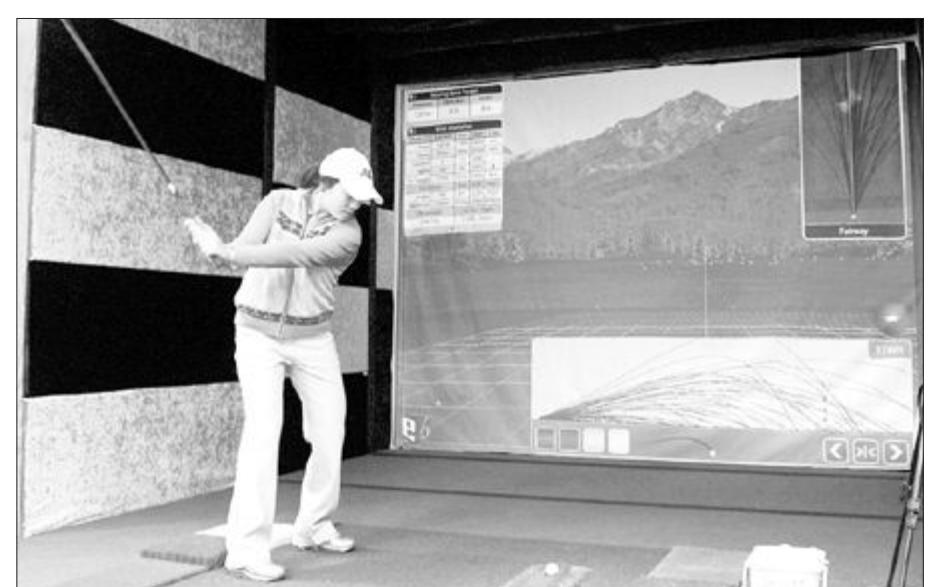




골프학과 학생들이 지난해 11월 개관한 '골프아카데미'에 갖춰진 최신 시설을 이용해 스윙 등 기본자세를 익히고 있다.



골프학과 재학중인 전아영 KLPGA프로가 스크린 연습장 앞에서 샷 시범을 보이고 있다.

국내 최고 시설·강사진 갖춘 '골프 요람'

스포츠 포커스

호남대 골프학과

골프 대중화에 발맞춰 한국골프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에 앞장서는 대학이 있다. 바로 호남대(총장 장병완) 골프학과이다.

호남대 골프학과는 최신 시설을 갖추고 전문 강사들이 포진, 우수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전문인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호남대는 이를위해 지난 2008년 USGA(미국골프협회), 아시아 골프연맹·USGTF(미국골프지도자 양성기관) 코리아 연맹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과학적인 훈련과 교육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명실상부한 '골프요람'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최경주와 우승 다툼도

5년전 개설된 골프학과는 그간 KPGA 투어 7명과 KLPGA 투어 3명 등 총 10명의 프로선수들을 배출하는 등 인재 육성의 풍성한 결실도 맺어가고 있다.

이들 중 지난 2월 골프학과를 졸업한 이민창·이대준(이상 대학원 1년) 프로는 체육대학원에 입학해 지속적인 학문 습득과 함께 내달 시작되는 2010 KPGA 정규투어에서 정상을 향한 삶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민창 프로는 지난 2008년 KPGA선수권 대회에서 '완도 탱크' 최경주와 우승을 다투기도 했었던 유망주이다. KLPGA에서는 강업지·전아영(이상 2년)·장사랑(3년) 프로가 각각 활약하고 있다.

각 학년별로 3~4명은 세미프로 자격을 갖고 골프지도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골프학과 총 58명의 학생 중 15명은 이달 말 시행하는 세미프로 테스트에, 10여명은 오는 7월 KPGA 프로테스트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또 20여명의 학생은 현재 아카데미 투어(KPGA·세미프로·아마추어 대상), 프런티어 투어(세미프로·아마추어 대상), 배어리버 투어(KPGA·세미프로 대상)에 참가하고 있다.

이처럼 꾸준한 골프 유망주 배출은 우수한 지도자들이 있어 가능했다.

무엇보다도 골프 국가대표 출신인 박인혜 주임교수가 탄탄한 강사진을 앞세워 골프학과를 이끌고 있다. 박 교수는 지난 1998~1999년 2년간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그린을



호남대 골프학과 박인혜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골프아카데미'에 마련된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통해 학생들에게 샷 자세를 설명하고 있다.

KPGA·KLPGA 선수 10명 배출

지도자·전문인력 등 인재 양성 심혈

"한국 골프의 미래 이끌어 나갈 것"

누렸으며, 이후 국내 프로 생활과 대한체육회 스포츠외교전문가과정 등을 거치며 이민학 실무와 이론을 바탕으로 골프 주역들을 키워내고 있다.

이밖에도 김진영·김진용·김수철(이상 KPGA 프로)·박장혁(진디하 박사)·공봉주 강사와 한길수 겸임교수 등이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골프장에서 부담없이 연습

또 호남대 골프학과의 자랑거리 중 하나는 최신 시설을 갖춰 지난해 11월 개관한 '골프아카데미', 이 곳에는 드라이빙 레인지, 어프로치 연습장, 페팅 연습장, 스윙 분석실, 트레이닝장 그리고 스크린연습장 등 골프 기본기를 정확히 습득할 수 있는 각종 훈련 시설이 갖춰져 있다. '골프아카데미'의 시설은 전국 10여개 대학의 골프학과 중 최고 수

준이라 할 수 있다.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정규 골프장이 주변에 많은 것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학교 측에선 전남도내 골프장 한 곳과 협약을 맺어 프로 선수들이 대회를 앞두고 부담없이 연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이렇듯 최신 시설, 전문 강사진 외에도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활력소가 또 있다. 폭넓은 장학혜택이다.

학업 성적 뿐만 아니라 대회 성적으로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범위를 넓혔다.

전국규모 대회 개인 3위 이내 입상자는 1학기 등록금을 면제 받는다. 전국대회 단체 4위 이내 입상하거나 티칭프로에겐 100만 원, 전국대회 4~8위 입상엔 50만원의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호남대 골프학과는 선수들의 기량 향상 뿐만 아니라 졸업생 취업에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골프장 관리, 경영, 골프전문기자 등 골프관련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무난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수·학생들 모두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성적 따라 장학금도 풍부

박인혜 교수는 "골프인구가 350만명이 넘는 한국의 골프는 선수와 지도자 뿐만 아니라 골프산업분야의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이에 맞게 호남대 골프학과는 골프선수 육성과 지도자 양성, 그리고 골프산업인력 양성이라는 3가지 교육방향으로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한국골프가 세계 골프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젠 글로벌화된 골프전문가를 더욱 양성해야 된다"면서 "교과과정도 골프실기는 물론 외국어 능력을 위한 학습과 골프 비즈니스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골프장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조건, 수업 받으며 대회에도 출전할 수 있는 배려, 최신의 시설을 갖춘 연습장 등 최상의 수업환경을 갖춘 호남대 골프학과가 한국골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학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서승일기자 swseo@kwangju.co.kr

/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7급 9급 공무원 / 경찰직

합격 전문학원

- 2009년 광주, 전남지방 고시에 1등 1위를 획득한 학생 10명
- 2009년 광주지사 교육행정직 1등 1위를 획득한 학생 10명
- 2009년 광주, 전남 소방직 1등 1위를 획득한 학생 10명

개강) 매월 1회

경찰직 / 교육행정직 / 세무직

급증하는 소통직 전문

내원 교육

국어: 승용차 운전면허

경찰직

서울경찰전문학원 1251-79591

법률 전문가

서울고시학원

514-4560
kjgosi.co.kr

MDPass 医학원

전화 02-542-5555
02-542-5555

의사/약사가 되는 길

한국교대 의과대학원 ||| 한대 의과대학원 |||

한국교대 치과대학원 ||| 한대 치과대학원 |||

PEET / MEET / DEET

한국교대 의과대학원 ||| 한대 의과대학원 |||

한국교대 치과대학원 ||| 한대 치과대학원 |||

한국교대 의과대학원 특집

한국교대 의과대학원 특집
한국교대 치과대학원 특집
한국교대 의과대학원 특집
한국교대 치과대학원 특집

한국교대 의과대학원 특집
한국교대 치과대학원 특집